

신건우 작가 ‘진부한 것이 새로운 것이다’

달천예술창작공간 10월 25일(금)~11월 3일(일)까지 전시, 관람료 무료

지난 9월부터 (재)달천문화재단 (이사장 최재훈)이 운영하는 북촌문화공간 달천예술창작공간에서 제4기 입주작가들의 결과 보고전이 이어지고 있다. 10월 25일(금)을 시작으로 11월 3일(일)까지 세 번째 권과 보고전, 신건우 작가의 개인전 ‘진부한 것이 새로운 것이다’가 개최될 예정이다.

신건우 작가는 도시를 산책하며 나지 여행자의 관점에서 주변을 탐구한 풍경을 초현실적 세계로 재구성하여 평면 회화로 표현하는 길을 걷는 작가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가 선보이는 ‘그림자 도시’, ‘성복색 도시’ 시리즈는 달천예술창작공간 근처에 있는 오래된 가옥들을 주제로 그려낸 작품들이다.

전시의 제목 ‘진부한 것이 새로운 것이다’에서 작가의 예술적 태도를 엿볼 수 있듯, 작가는 주변을 관찰하고 작업화 과정을 통해 익숙함 속 낯설이 공존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를 이번 작업에 녹여냈다. 특히 레지던시 주변의 개성적인 오색 가옥의 길모퉁이를 관찰하고, 내부를 심심히 익숙함과 낯설이 교차하는 경험을 평면 회화에 담아냈으며, 완성된 강력한 색감의 초현실적인 작품을 마주할 땐 작가의 시각적 구현에 대한 도전정신도 느껴볼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낯선 지역을 주제로 기획된 프로젝트의 문화적 실천물을 ‘잘 알 수 없는 unknowable’이라는 타이틀로 선보인다.

이번에 공개하는 프로젝트 실천물 ‘잘 알 수 없는 unknowable’과 앞서 전시된 제4기 입주작가들의 실천물 사이엔 큰 차이가 하나 있다. 그 긴 바로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닌,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라이프드로잉을 통해 작품을 선보인다는 점이다.

작가는 약 8개월간 달천예술창작공간에서 창작활동을 하며 향토 바



신건우 그림자 도시 국가유공자의 집, 2024, Oil and Acrylic on canvas, 130x 102cm

으로 보이는 극가적인 풍경들을 전시장에 있는 약 6m 쉼의 캔버스 화면에 라이프드로잉으로 그려낸 예

시이다. 전시기간 중 완성된 드로잉과 그 과정을 담은 영상까지 전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이며, 전시장을

가득 채운 크기의 작품은 관람객에

게 풍경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갖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달천예술창작공간 1층 공간에서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자료제공:달천문화재단>



‘권오봉의 개인전’

2025년 2월 2일(일)까지 대구미술관 2,3전시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관장 노중기)은 2025년 2월 2일(일)까지 대구미술관 2,3 전시실과 선린가든에서 제24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 ‘권오봉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서양화가 권오봉은 대구를 기반으로 오랜 시간 자유롭고 역동적인 선의 세계를 표현하며 독창적인 회화를 탐구해 왔다. 전시 기간 중 도슨트(전시 설명 프로그램), 참여 이벤트, 교육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의) 053-430-7900



‘이윤경의 두시 데이트 III’

10월 29(화)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틀

대구문화예술회관의 마티네 콘서트인 ‘이윤경의 두시 데이트 III’가 오는 10월 29일(화)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틀에서 열린다. 10월 ‘이윤경의 두시 데이트’는 프랑스 낭만주의 대표 작곡가인 샤를 구노(Charles Gounod, 1818~1893)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원작으로 제작한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Romeo et Juliette)’을 다룬다.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부

터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1만 원이다. 예매·문의)053-430-7665

역사극 전문 채널

역사는 드라마다!

씨엔티브이

푸른방송 앞돌형 33-1 / 디지털 51번

중국 드라마 전문 채널

완벽 자막으로 즐기는 중드

채널차이나

푸른방송 앞돌형 56-1 / 디지털 121번

액션 영화 전문 채널

세계의 모든 액션을 즐겨라!

채널액션

푸른방송 디지털 98번

[주]씨엔티브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대오빌딩 12층 | <http://www.cntv.co.kr>